전남도, 2조7천억 '국가 수소특화단지' 유치 도전

영광대마산단 최대 규모 조성 공모 신청
'무탄소전력' 경제·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전력계통 포화 완화…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남도가 '서남해안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도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대마산단 배후부지(2만5천평)와 대마산단(7만평)에 총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1단계로 500㎿급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1G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경제적·안정적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국내 수전해 관련 기업, 고등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 생산에서 저장·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서남해안의 국내 유일 원전과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해 청정수소 생산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강원·경북의 수소특화단지가 저장·운송 또는 활용 중심인 것과 달리, 전남은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단지 자체를 구축하고 전력계통 포화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도의 이번 사업에는 국내 굴지의 수소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 등 20여개 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업 성공과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이 국가 수소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 ▲호남권 전력계통 포화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보완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산업용 청정수소 공급 ▲국가 탄소중립 실현 ▲서부권 신성장 산업 거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기업의 청정 수소 관련 대규모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전남 서부권의 값싼 청정수소를 여수광양만권에 안정적으로 공급, 청정수소 생산과 석유화학·철강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를 공고했다. 지자체의 공모계획서를 접수하고 향후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에너지"라며 "전남에 국가 수소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전남을 청정수소 신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국내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

'광주 에이스 페어' 28일 막 오른다

DJ센터서…400개 기업 507개 부스
투자유치 밋업·AI 경진대회 등 선봬
32개국 200여명 해외 바이어도 참가

국내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5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 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28-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0주년을 맞는 에이스 페어는 '패러다임을 넘어, 광주로의 초대(Invitation from Gwangju: Beyond the Paradigm)'를 주제로 열리며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시·비즈니스 상담을 넘어 20주년 기념 주제관, 확장현실(XR) 신기술 체험, 투자유치 상담회(meet-up), 청소년 인공지능(AI) 콘텐츠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미래 콘텐츠 산업의 경향을 제시한다.

20주년 기념 주제관은 20년 간 광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롤로그 '에이스 페어 20주년, 광주 콘텐츠 산업의 발자취'를 시작으로 캐릭터·애니메이션, 방송·웹툰, 디지털 콘텐츠 등 3개 융합 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관에서는 체감형 XR 콘텐츠 기업 뉴작의 'XR-Runner'와 XR 슈팅 게임 등 최신 XR 기술 체험이 가능해 관람객에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400개 기업(국내 368개, 해외 32개)이 507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광주지역 기업으로는 스튜디오버튼, 울트라그린, 핑고엔터테인먼트,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이 캐릭터·애니메이션 부스를 운영한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 CJ ENM, 딜라이브 등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SAMG엔터테인먼트도 '캐치! 티니핑'과 '메탈카봇' 등 인기 작품을 바탕으로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32개 국가에서 약 200명의 바이어가, 국내에서는 콘텐츠 기업 카카오, KBS미디어, SBS미디어넷, MBC문화방송 등이 참여한다.

해외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지역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밋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변은진 기자

道,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유치 논의

전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전남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허브 조성을 위한 지·산·학·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진우 전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목포대·순천대·전남대 교수, 전남연구원 등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유치를 위한 전남도의 조성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전남만의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대학 인재 양성 활성화, 농식품 기업 유치,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전남도 육성지구 지정 당위성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임원진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모색

金지사, 소통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열어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화·일손 부족 등 어촌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논의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해 어장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성 내용을 담은 자율관리 규약을 만들어 어장 휴식기, 수산종자 방류, 해양쓰레기 처리, 어획량 축소 등을 실천하는 어업 공동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진들은 공동체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추가 지원·육성사업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을 위한 지역·품종별 수산종자 방류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 개정 등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개선과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유치와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일손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정기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최근 기후위기와 고령화, 신규 인력 감소 등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전남도가 선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전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도전

차승세(사진) 노무현시민학교장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 교장은 2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이 광주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호남권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 교장은 "과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만 도전하는 자리처럼 여겨졌으나 이제 평당원에게도 기회가 열렸다"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장은 내년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출마 여부에 대해 "최고위원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최고위원 당선 시 지방선거 출마 포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변은진 기자